

인사말씀

유구한 민족의 역사에서 불교는 1700여년간 우리의 정신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승해온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은 선조들의 노력을 통해 그 시대마다의 가치와 진정성을 고스란히 담으며 문화유산으로 꽃피워 왔습니다.

현시대가 향유하는 불교문화유산에 그 시대의 삶과 문화가 깃들여져 있는 것은, 분명 당시의 삶을 살아간 스님들의 공덕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님 한분 한분의 정신과 삶이 오롯하게 담겨진 그림이 진영이며, 정신문화를 중요시하는 불가의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귀중한 정보가 국외로 반출되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동악당 재인대선사 진영>이 다시금 모셔진 것은 큰 다행입니다.

지난해 10월 문화재청과 경찰청이 함께하여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종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환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첫 성과로서 <동악당 재인대선사 진영>이 미국에서 환수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적 협력을 통해, 종단은 문화재청과 함께 국외로 불법 반출된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제자리로 찾아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종단과 문화재청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국외 환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도난문화재에 대해서는 환수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문화재청과의 협력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국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불교문화재가 조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나선화 문화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처럼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져 그 성취가 많은 곳에 유익하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